



# 일자리 창출의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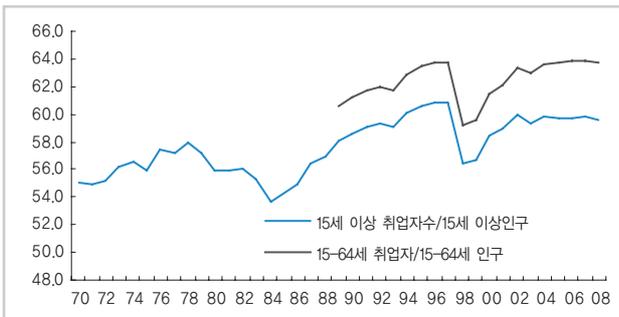
朴宗奎 (先任研究委員, 3705-6257)

2008년까지 우리나라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지난 정부부터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어 왔음. 이는 청년, 특히 20대 후반 남성의 고용률이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30대 여성과 함께 20대 후반 남성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조정 부담이 특정 연령층과 특정性に 집중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고용대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생산가능 연령(15~64세) 인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무작정 늘어날 수는 없음.
  - 2008년 현재 생산가능 연령인구 기준의 고용률은 63.8%로, 역대 최고치였던 1997년 63.7%와 비슷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임(〈그림 1〉, 〈그림 2〉).

〈그림 1〉 우리나라 연도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그림 2〉 OECD 각국의 고용률 현황(2007년)

(단위 : %)



자료 : OECD

- 2000년 이후 연령별 고용률 추이를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의 고용률은 증가추세를 유지함으로써 인구 대비로는 일자리 숫자가 꾸준히 늘어났었음(〈표〉).
  - 10대 후반은 학업에 몰두해야 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그들의 고용률 하락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으며 20대 초반의 경우는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이었는지 좀 더 다각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해 보임.
- 10대와 20대 초반 이외의 나머지 연령층 일자리는 인구대비로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일자리 창출”이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던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음.



〈표〉 우리나라 연령별·성별 고용률

(단위 : %)

전 체												
	계	15-6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2000	45.0	59.8	10.1	43.1	65.0	69.2	74.9	76.2	75.8	69.8	62.2	53.0
2008	48.5	62.8	5.8	37.7	67.8	70.3	74.6	78.8	77.8	74.7	66.9	55.0
남 성												
	계	15-6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2000	52.3	69.3	9.5	30.6	75.9	90.0	91.3	90.1	87.9	85.4	74.5	61.5
2008	56.1	71.6	4.8	26.0	69.0	87.6	90.9	91.9	90.6	88.8	81.2	68.4
여 성												
	계	15-6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2000	37.6	50.0	10.8	56.4	53.5	47.3	57.7	61.8	63.3	54.0	50.3	45.5
2008	40.8	53.5	7.0	50.3	66.5	51.9	57.5	65.2	64.8	60.4	52.7	42.5

- 유의해서 살펴볼 연령층은 25~29세로 이들의 고용률은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남녀 고용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크게 엇갈리는 특이한 모습을 보였음.

  - 남성 고용률은 2000년 75.9%에서 2008년 69.0%로 6.9%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53.5%에서 66.5%로 9.5%p 상승하여 남녀간 고용률 격차도 22.4%p에서 8년 만에 2.5%p로 축소
  - 30대 전반의 남성 고용률도 20대 후반 연령층만큼 두드러지지 않지만 2000년의 90.0%에서 2008년에는 87.6%로 2.4%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47.3%에서 51.9%로 4.6%p 상승
  
- 글로벌 위기 이전, 양호한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부각되어 왔던 이유는 청년층, 특히 20대 후반의 남성 고용률이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 남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통념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의 취업실패를 여성의 취업실패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므로 청년 남성의 고용률 하락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왔다고 보여짐.
  - 그러한 사회통념이 사라지지 않거나 청년 남성, 특히 20대 후반 남성의 고용률이 증가세로 전환되지 못하는 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일자리 문제는 주요 이슈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금년 들어 20대 전반 남녀 및 20대 후반 남성, 그리고 30대 여성의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중임.

  - 고용 창출 및 유지에 있어서 연령이나 성별에 직접적인 차등을 두는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노동시장의 조정부담이 특정 연령층과 특정 성에 집중되는 문제가 방지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고용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KIF**